

『제 11회 2005년 韓·日 원적외선 심포지엄』 개최일자 확정

협회는 지난 5월에 열린 「제 10회 韓·日 원적외선 심포지엄」 2004년 오사카대회에 이어 내년 5월 20일(金)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제 11회 韩·日 원적외선 심포지엄」 서울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사단법인 한국원적외선협회와 일본원적외선응용연구회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새로운 기술과 신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한·일 양국의 인적교류를 통한 원적외선 분야의 연구개발 촉진 및 시장확대, 원적외선의 과학적 이해와 검증 등 첨단기술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매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개최되고 있다.

지난 5월 일본오사카에서 개최된 「제 10회 한·일 원적외선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관련업체와 학회인사 등 300여 명의 참석 속에 성황리에 마쳤으며, 「제 11회 韩·日 원적외선 심포지엄」은 5월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측 강사 2명, 일본측 2명 그리고 중국측 1명이 최신의 원적외선 관련 기술정보와 연구 내용을 강연한다. 日本측과 中國측에서는 이번 심포지엄에 학계, 업계 관계자들이 방한할 예정이다.

일시: 2005년 5월 20일(金) 09:30~19:00

장소: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

주최: (사)한국원적외선협회, 日本원적외선응용연구,

◇ 협회 이모저모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이익창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심포지엄과 세미나 등의 학술행사 개최를 비롯하여 원적외선 특별강연 및 자료집, 보고서 발간 등으로 신기술과 정보제공에 앞장서고 있고 원적외선에 대한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체계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 협회는 지난 9월 21일(火)과 22일(水) 양일간에 걸쳐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표준화 과정' 교육에 협회의 신보철 선임연구원이 참가하였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에 협회가 표준화 단체 표준개발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것과 연계된 교육으로 보다 나은 표준을 개발하여 국내

표준이 아닌 세계적인 표준이 되기 위한 것으로 표준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교육은 양일간에 걸쳐 8명의 저명한 국내외 교수를 비롯한 여러 표준개발에 전문적인 강사로 구성되어 있어 알찬 표준화 기초 교육으로 평가받고 있다.

◎ 협회는 지난 9월 일본 기능성이온협회와 중국 건강환경협회와 함께 「동아시아 기능성 이온 협회」의 설립에 대해 서울 강남 리츠칼튼호텔 비즈니스 센터에서 제 2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 연합 협회는 음이온관련 제품과 측정기술의 국제표준화를 목표로 하는 등, 기술교류도 가속화하여 음이온산업화에 매진할 것이다.

오는 12월 10일 중국 상해에서는 각국에서 선출된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동아시아 기능성 이온 협회」의 3차 상해회의를 개최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통해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음이온산업 활성화와 확대를 도모할 예정이다.

◎ 협회에서는 회원사와 각종 방송매체 및 회원사의 전시회에 협력하여 원적외선 응용 우수제품에 대한 마케팅 홍보효과를 지원하고 있다.

협회에서는 한중바이오(주), 코리아자수정(주), (주)태영이엔티, (주)한국 할로겐, NOVA COREA, (주)트윈세이버, (주)성신사이언스 등 회원사들의 원적외선 및 음이온 등의 기능성 제품들의 전시회 및 TV제품홍보, 전시회출품, 회사소개용 촬영등 전시회 협력 및 방송제작을 위해 원적외선방사량 측정 및 음이온 측정, 적외선열화상측정, 적혈구 측정, 혈류량 측정, 뇌파측정과정 등을 생동감있게 실측해 주었다.

◎ 협회는 그간 회원사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속에서 재정적인 안정을 갖추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회원사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가입의 문턱을 낮추어 다양한 업종과 업체의 가입환경을 조성하고 업체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했으며, 협회는 원적외선 산업계의 구심체가 되어 더욱 위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권익보호와 이익창출에 더욱더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